

출생미등록자 맞춤형 지원

익산시, 민간변호사와 협업 · 체계적인 출생신고 법률지원서비스 실시

익산시가 출생미등록 아동의 원스톱 통합서비스지원으로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강화한다.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TF 팀이 이달 31일까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소송을 민간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소송과 친생부인 소송 등을 진행했다. 법률 자문 및 관련 소송비용을 최소화했으며 인지도, 송달료 등 실제 필요 경비도 50% 지원으로 출생등록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유

전자 검사비용은 원스톱 지원을 담당 한 이화영 주무관이 기탁해 흔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으며 올해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 1명을 발견했다.

이번 경우도 지난해와 같이 아동의 출생신고 지연 사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하 친생부인)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 이후에 출생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친생부인 소송 사건의 경우 관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 중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안전한 군산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군대역사박물관 옆 주차장 일원서 20일부터 이틀간 열려

군산시가 안전한 군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시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군대역사박물관 옆 주차장 일원에서 군산 지역특화 수산물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물 유통기업체가 직접 참여하며 군산 참돔, 박대, 꽃새우, 간장게장, 메기볶음 등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시식회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특화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내실 계획이다.

이번 장터는 소비자들은 부담을 덜고, 판로가 어려운 수산인들의 판매에 큰 힘이 되는 ‘상생’ 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시민소통 신뢰확보, 소비위축 극복 등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는 검사 및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집중 단속을 상시체제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비응향 위판장은 지난 7월부터 전국 위판장 중 위판물량 상위 주요 위판장 43개소에 해당하는 유통 전

방사는 신속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군산시민 소통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 방사능 검사결과 및 대응계획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군산 지역사랑 캠페인 수산물 안전성 홍보영상 제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안전한 지역 수산물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수산물 할인판매)에 선제적으로 대응, 전국 7개 대표 수산시장 중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며 15일간 약 13억원의 소비촉진 효과를 가져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예산 범위 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수산물 라이브 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내년까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를 통해 우리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발판 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군산시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안전, 수산물 소비위축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민선 8기, 교육 · 문화관광 기반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본격 추진

군산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민선8기, 교육 · 문화관광, 키움으뜸 가족 행복도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주요업무를 점검했다.

시는 5일 2024년 신규 시책 및 시정 역점 · 주요사업 등에 대해 전 부서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토론의 장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2024년 신규시책과 역점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로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장 뿐만 아니라 27개 읍면동장 등 시 전체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민선 8기 2년차에 돌입하는 만큼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한 계속 사업의 진행 상황도 면밀히 검토했다.

2024년에는 역점, 주요 · 일반 업무 총 677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116개의 새로운 사업이 발굴됐으며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보고회는 국소장의 신규 · 역점 사업 보고 후 전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별 핵심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촘촘히 다듬어 나갔다.

특히, 주요 현안 사업인 인구감소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돌입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에 시정 운영의 중점에 두고 현안을 점검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9개월 동안 시민 간담회, 시민정책 TF, 이청득심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초등방학 중 건강도시락,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박람회, △청년 결혼지원금 지급 등 아이키움, 청년키움, 가정키움, 지역키움 4대 분야에 신규사업 29개, 계속사업 9개 등 총 38개의 키움으뜸 마중물 사업을 발굴했으며, 앞으로 전 부서가 힘을 모아 발굴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속도감 있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 △2024 군산 취 · 창업 박람회, △서해안권 대표 명소화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산업경제, 일자리 및 문화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며,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인근지자체와의 관할권 다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등 중대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사업들도 무게감 있게 다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IoT활용 신호등 전기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익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신호등 전기설비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원격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억1,600만원을 투입해 신호등 분전함 490개소에 원격점검설비를 설치한다.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기술(IoT)을 활용한 상시 · 비대면 원격점검체계 전환을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다.

원격점검장치를 통해 전기설비의 통전압 부하전류, 누설전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정전·경보 신호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원격점검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지자체에 제공해 전기설비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재해 등 감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스마트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지역 소식통

제8회 군산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가을바람에 실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다.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은파호수공원 물빛아트광장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군산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가을바람에 실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총 9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개막작 ‘나는보리’ 감독인 김진우 감독이 참석해 관객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짓말’, ‘질주’, ‘영림동 소녀’, ‘성현이와 정미의 슬기로운 자립생활’ 등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폐막작 ‘니 얼굴은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발달장애가 있는 캐리커처 작가 은혜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 접수

익산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맞춤형복지서비스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10만원 △2인 세대 15만원 △3인 세대 20만원 △4인 이상 세대 25만원으로 가구별로 차등 지원될 예정이며, 난방유형에 따라 선불카드 배부 또는 계좌로 입금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